

“우린 한가족!”

이미 한가족이나 다름없는 우리!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소식터로서, 사보 '한세in'이 '한세인'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동료의 특별한 날에 메일이나 전화 한 통으로 짝짝 축하를 전하는 건 어떨까요? 생각지 못한 메시지에 기쁨은 배가 됩니다.

”

행복한
결혼생활의 시작
오지윤 주임
(Fabric&Color팀)



10월생
귀염둥이
이대설 대리
(215팀)



미니미 탄생
원고는 주임
(132팀)



아름다운
선남선녀의 웨딩촬영
유재송 주임
(디자인2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김세원 대리
(712팀)



사랑스러운
아이의 탄생
서정민 과장
(6A11팀)



아빠의 등이
편안해요~
최홍창 대리
(321팀)



알콩달콩
신혼생활
김지애 대리
(315팀)



귀여운
공주님의 모습
김홍규 차장
(55부)



결혼을 축하합니다

최인에 주임 (711팀)	10월 11일
이만재 대리 (222팀)	10월 18일
김규범 주임 (6A31팀)	10월 18일
김지혜 대리 (313팀)	10월 18일
천송화 주임&이샘 주임 (572팀&1A72팀)	11월 01일
당동호 주임 (713팀)	11월 02일
박현우 주임 (132팀)	11월 16일
서원선 주임 (151팀)	11월 22일
이경진 주임 (315팀)	11월 23일
오지윤 주임 (Fabric&Color팀)	12월 06일
김지애 대리 (315팀)	12월 13일
유재송 주임 (디자인2팀)	12월 13일
전효은 주임 (151팀)	12월 20일

탄생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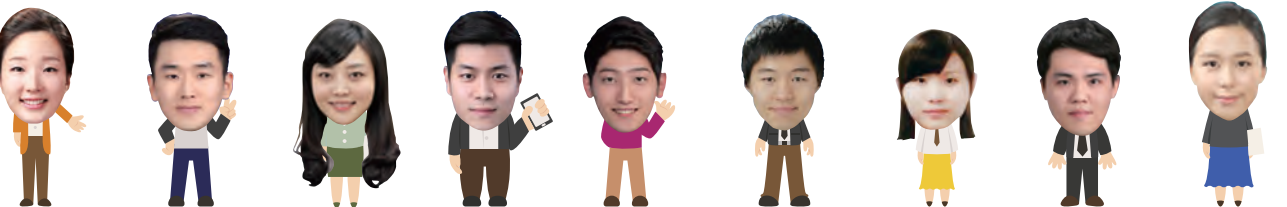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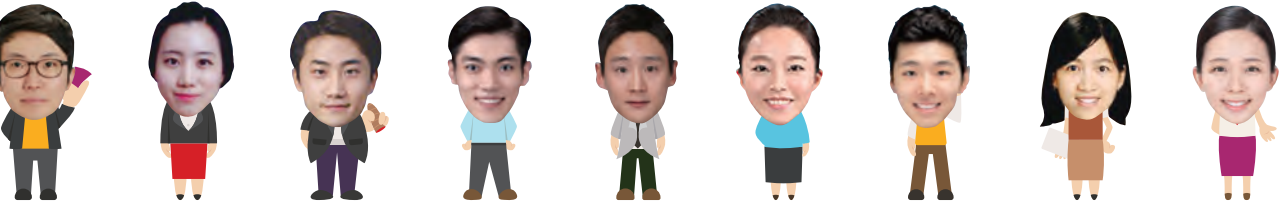
김세원 대리 (712팀)	10월 15일
이대설 대리 (215팀)	10월 16일
김지영 과장 (332팀)	11월 04일
서정민 과장 (6A11팀)	11월 11일
박현지 주임 (551팀)	11월 16일
최홍창 대리 (321팀)	11월 24일
김대욱 주임 (5부문 물류팀)	11월 24일
원고는 주임 (132팀)	12월 07일
김홍규 차장 (55부)	12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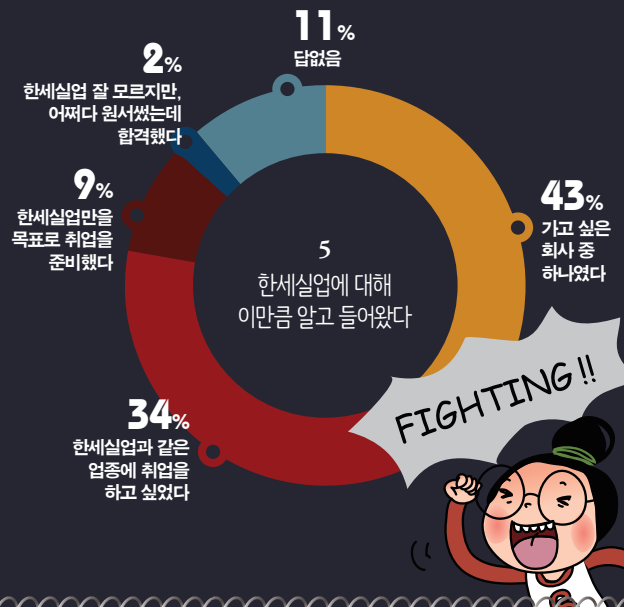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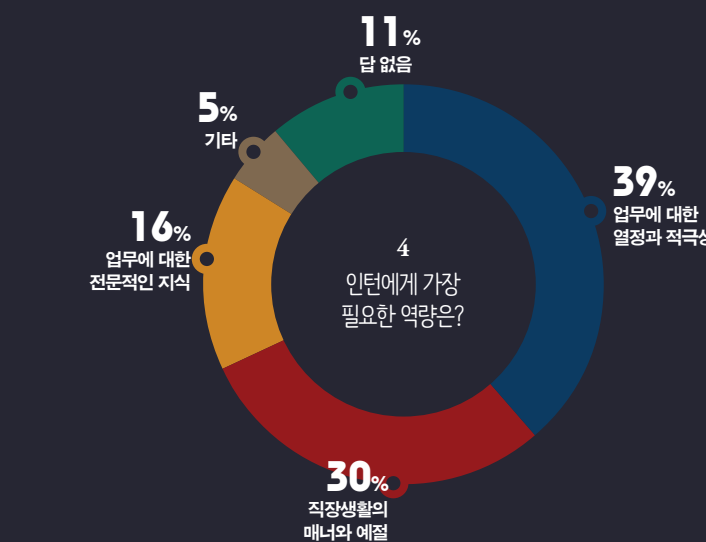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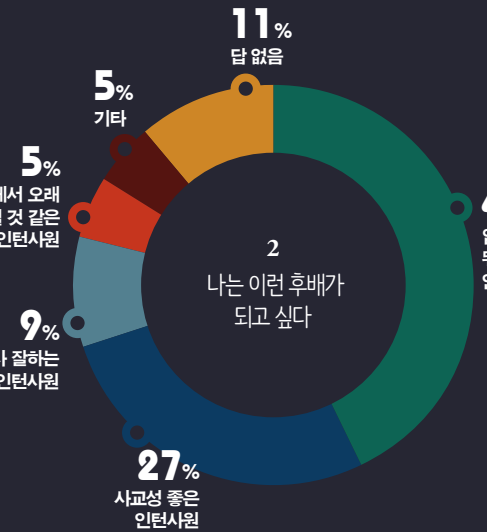
HANSAE:IN

HANSAE QUARTERLY MAGAZINE Vol.003 WINTER

14차 민턴
47인



2014년 10월, 한세실업에 14차 인턴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간의 인턴생활을 거쳐,
정직원 전환을 꿈꾸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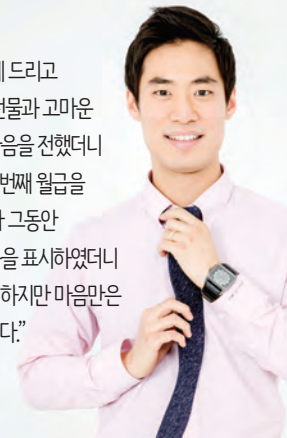
152팀 · 김준영 인턴
(1986년 1월생)
“졸업 후, 벤처사업을
하다가 취업을 하게 되어
동기 중 최고령자가 됐습
니다. 벤더 업계에 관심이
많았기에 한세에서 꼭
일을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712팀 · 이승미 인턴
(1992년 2월생)
“10학년인 저는 남들보다
빨리 입사를 하게 되어,
배울 날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소 인턴의 패기를 잃지 않고
노력하는 인턴이
되겠습니다”



711팀 · 이웅희 인턴
 “인턴이지만, 직원 같은 인턴
 이웅희입니다. 한세실업 면접에
 떨어진 후 아르바이트로 들어와
 4개월 동안 일한 후 동일한 팀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다른 동기들보다
 빨리 업무 적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21팀 · 유지한 인턴

“첫 월급의반은 부모님께 드리고
남은 반으로 여친구 선물과 고마운
분들께 기프트콘으로 마음을 전했다니
제 자갑은 텅 비었고, 두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에는 연말이라 그동안
신세졌던 분들께 고마움을 표시하였더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총무팀 · 김민우 인턴
“한세에 미남미녀가
참 많은데 송구스럽고
민망하지만,
감사합니다.”



262팀 · 조하늬 인턴

“제가 알쌍이라니…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조금 어떨떨합니다.
새로운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세인들의 덕담 한마디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엔 기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덕담과 새해 소망을 나눠봅니다.

방미경 대리 한세 베트남 외주관리



사랑하는 우리
여보, 더 사랑하는
우리 지원아
2015년은 우리
셋이 다 떨어져
지내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 있자!

윤권식 부사장 수출7부문

2015년 힘찬 새해의 봄은
괘양처럼 가슴 속 뜨거운
꿈을 향해 도전하시고,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일들이 정말 많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근학 과장 베트남 TG COP CAPTAIN



한글을 시작한 딸이 베트남 근무를 하고 있는
아빠한테 보낸 첫 편지랍니다.

내 딸 예린이 새해에도 건강하고,
아빠도 예린이 많이 사랑해요~

남효정 대리 211팀

진형균 과장님, 임용택 대리님,
김우현 대리님 세 분 모두
현재 미혼이세요.
2015년에는 모두 짝을 찾으셔서,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구자원 인턴 263팀

한세 263 PINK 김인환과장님, 김재광
대리님, 장주희 주임님, 이남식 주임님,
윤정서주임님, 프영주임님, 이선정주임님
그리고 광표형! 언제나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구선희 아버지,
송선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5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강지영 대리 535팀

최도윤 인턴(14차 인턴)!
무럭무럭 자라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어 줘~ 지금까지 파이팅하자!

최도윤 인턴 535팀

강지영 대리님, 인턴 최도윤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척척박사 최박사가 되겠습니다.

김종화 주임 경영분석1팀

지난 2년 7개월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베트남법인 가족들에
새해인사 드립니다. 베트남 법인에서
최고의 성과가 가득하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2015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한석형 대리 Compliance팀

한세 임직원 여러분

"A Super Happy New Year to You!"

2015년 올미년 새해에는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뜻하신 대로 꿈꾸신 대로

이루어지는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은영 대리 한세 TN 5공장



TN #5 직원들 2015년도 파이팅!



임원이 직원들에게 권하는 '내 인생의 책은?'



1부문 김경 전무님

연금술사

신부가 되기 위해 라틴어, 스페인어, 신학을 공부한 산티아고는 어느 날 부
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양치기가 되어 길을 떠난다. 집시 여인, 늙은 왕,
도둑, 화학자, 낙타몰이꾼, 아름다운 연인 파타마, 절대적 사막의 침묵과
죽음의 위협 그리고 마침내 연금술사를 만나 자신의 보물을 찾게 된다...

추천 이유

목표를 향해 갈 때,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목표든지 이를
수 있다는 것과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사람을 비롯해 하늘도 도와준다
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희망과 좌절이 늘 공존하고 있
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천합니다.



조선 왕조실록

5부문 주상범 전무님

정통한 역사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을 정리한 책이다. 방대한 분량의
<조선왕조실록>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권에 담았다. 실록 중
심으로 조선 역사에 대한 통찰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추천 이유

과거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식을 넓힐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대한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되어 추천합니다. 고려, 신라 왕조 실록에 이어 고구
려, 백제 실록까지 확대하여 읽게 될 경우 우리 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시
각과 자긍심을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웃라이어

6부문 양승열 전무님



각 분야에서 성공한 아웃라이어, 그들이 그렇게 성공하게 된 요인들
을 분석하여 일반적인 성공의 규칙들을 넘어서 그 무엇을 발견하여
알려주고 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문화적인 기회들과 시대적인
기회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지는 1만 시간의 법칙들을 통하여 평범한
사람에서 아웃라이어로 거듭나게 되는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

추천 이유

이 책을 통하여 모든 직원들이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
길 바랍니다. 자기의 일에 보람과 가치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여 1만 시
간을 투자한다면, 반드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

7부문 윤권식 부사장님



자기 발견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재능과 강점을 발견 할 수
있고 기업은 직원들의 강점을 살려 최고의 성과를 끌어내는데 활용
할 수 있다. 그리고 34 가지 강점이 만들어지는 테마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조직을 강하게 만들어 최고의 성과를 얻
어 낸다.

추천 이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 그 강점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성
공한 사람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영업에서 첫 꽃봉우리를 터뜨리는 사람들

코디네이터 4인방을 만나다

한세실업의 영업 파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바로 코디네이터들이다. 이들은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세실업의 비전 및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규 바이어를 뚫어 시장을 개척하는 등 영업 분야 최전선에서 전방위로 일하고 있다. 한세실업 코디네이터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 한울 / 사진 · 안지섭

한세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코디네이터

coordinating부분부 서귀영 상무이사, 수출 5본부 coordinating부 선동협 차장, 수출 3본부 coordinating부 강혜선 차장, 수출 3B본부 MR부 coordinating 1팀 임병훈 차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가 가장 기쁘고 보람이 크다”며 입을 모았다. 코디네이터들은 각 본부별 현황과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회의를 갖고 만나고 있다. 하지만 워낙 해외 출장이 잦은 터라 한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 않은 상황 이기에 오늘 이 자리가 이들에겐 더욱 반갑다.

한세실업에서 코디네이터라는 직무가 생겨난 건 약 6년 전. 한세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고 코디네이터로서도 가장 선배급인 선동협 차장은 그간 회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한세에서 처음 근무할 때만 해도 직원이 170명이었는데, 현재는 7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어요. 이전까지는 조직문화가 딱딱한 편이었는데, 몇 년 사이 부드럽고 유연성 있는 문화로 바뀐 것도 큰 변화라 할 수 있죠.” /선동협 차장

사업의 구분 없이 자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참석한다는 coordinating부분부 서귀영 상무이사는 BCBG, 캘빈클라인 등 미국 명품 브랜드 회사에서 바이어로 26년간 일하다가 3년 전부터 한세실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녀는 바이어로 일을 하다가 바이어를 서비스하는 벤더가 된 경우에 속한다.

“모든 본부 직속의 신규 사업에 관여하고 현재 진행되고 사업에서도 특정 부서와 상관없이 제가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참여를 합니다. 또 TOP to TOP 미팅에도 참석하고요. 바이어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는 사람이라면, 코디네이터는 밥상을 맛있게 차리는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면서 업무적인 범위를 넓히고 제 역량을 좀 더 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귀영 상무

자신의 경험을 거울삼아 바이어의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업무적으로는 편했지만, 한국인과 근무한 경험이 적어서 문화적 간극을 좁히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게 그녀의 이야기이다.

서귀영 상무이사처럼 임병훈 차장도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바이어로 일하다가 한세에서 벤더로 일하게 된 사람 중 한명이다. 그 역시 업무적인 어려움보다는 조직의 변화에 따른 자신의 DNA를 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친화력과 조율 능력을 자신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입사한 지 1년 9개월 정도 되었어요. 기업문화를 익히는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지금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영업하는 사람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가 가장 기쁩니다. 고객과 일하다보면 조율능력, 즉 ‘밀당’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한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훈 차장

임병훈 차장의 말에 모두들 웃었다. 강혜선 차장은 10년 정도 패션디자이너 업계에서 근무하다가 3년 전부터 벤더로 일하고 있다. 전공이 패션디자이너인 그녀는 10년 정도 디자인 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한세에 와서 코디네이터 업무를 처음 하게 됐다.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먼저 모든 부분에서 마음을 열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그녀는 코디네이터로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가 참여한 미팅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 오더로까지 이어지면 그때 가장 흐뭇하고 보람이 커요. 한세의 비전이나 영업 전략 등을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저 또한 배우는 게 많고요. 저는 아직 이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공부하고 도전하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강혜선 차장

함께하진 못했지만 사내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 모든 영역에서 열정적인 김혜진 과장도 6본부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다. 이들 코디네이터들은 앞으로 자신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해외 출장이 잦아서 영업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아쉬움이 크다.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업무에 깊이를 더해서 자신이 참여하여 오더로 진행된 일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지 그 과정까지 들여다보고 싶다는 게 네 명의 공통 적인 생각이다. “물론 올해도 신규 바이어 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환한 웃음을 지었다. 한세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코디네이터들의 힘찬 행보를 올해도 기대해보자.



선동협 차장

서귀영 상무이사



강혜선 차장

임병훈 차장

* 한세실업!



축 수상! *



김동녕 회장, 제 28회 섬유산업 유공자 포상 은탑 훈장 수훈

한세에스24홀딩스 김동녕 회장은 국내 섬유산업의 동반성장과 고용창출, 바이어 확대를 통한 의류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은탑 훈장을 수훈하였다.

김동녕 회장, 제8회 EY 최우수 기업가상 '마스터상' 수상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글로벌 회계 컨설팅 법인 언스트앤영이 매년 전세계에서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마스터상을 수상한 김동녕 회장은 내년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60여 개국에서 선발된 기업인들이 함께 모이는 '언스트앤영 월드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로 참가할 예정이다. 김동녕 회장은 수상소감에서 '과거 글로벌 경제발전 전에 기업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듯이, 지금의 경제 저성장, 실업, 빈곤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실질적인 집단은 기업'이라며, '기업이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불평등도 완화해 경제가 순환 구조로 바뀌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 51회 무역의 날 10억불 수출탑 수상

12월 6일 한세실업은 제 51회 무역의 날에 10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이는 임직원들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로 한세실업의 지속적 성장의 주요 원동력은 다양한 지역의 글로벌 생산기지를 통해 세계 주요 의류 바이어들이 원하는 품질과 납기는 물론 디자인까지 맞추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 다음 단계인 40억불 탑을 받기 위해 한세in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Milwaukee Kohl's Global Developing Fair에서 Platinum Trophy 수상



11월 17일부터 21까지 5일간 밀워키에서 열린 Kohl's Global Developing Fair에서 한세실업이 1억불 수출(Crystal club) 트로피를 수상하였다. 한세는 전세계적으로 세아, 한솔, 마카롯(Makalot)이후 4번째로 수상한 벤더이며, 향후 Narrow and Concentrate Matrix policy의 진행으로, 추가로 큰 매출을 달성하는 벤더는 줄어들 예정이라 이 상의 희소 가치가 더 있다고 보여진다. 이후 1억5천, 2억불을 향해 달려가는 한세 코스 영업팀이 될 것이다.

MACY'S 2014 FIVE STAR SUPPLIER AWARDS 수상



지난 12월 4일, LA의 Island Hotel Newport Beach에서 열린 MACY'S 2014 FIVE STAR SUPPLIER AWARDS 시상식에서, 5 STAR AWARD를 수상하였다. 이번 상은 ON TIME Performance의 지속적 개선으로 2014년 97% 달성에 따른 결과로, 이번이 3번째 수상이다. 항상 Buyer와의 신뢰를 중요시 하는 한세 영업팀의 공로를 인정받은 상이었다.



* 베트남판 '여의도 타임스퀘어'

베트남에서 경제적으로 발달된 도시 호치민. 호치민의 여러 군 중에서도 경제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가장 화려한 1군, 그곳에 손 꼽히는 고층 건물 중 하나인 EMPRESS TOWER가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엔 다국적 기업들의 사무실이 층마다 들어서 있다. 버드와이저 맥주로 유명한 AB InBev, 세계적인 헤드헌팅 회사 Robert Walters와 함께 12A 층의 1/2을 차지하고 있는 HANSAE FASHION WORLDWIDE. 1층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 들고 사무실에 오는 길은 그 어떤 Professional business people도 부럽지 않다. 손에 든 향긋한 커피가 더 기분 좋은 건, 이 커피 한 잔이 단돈 1,000원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렇게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 의자에 앉는다. 베트남의 밝은 햇살이 사방으로 열린 높은 창으로 가득 들어오는 사무실은 언제나 눈이 부시다. 굳이 불을 켜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전기세가 아깝다 생각이 들 정도이다.

* 오고 가는 망고 한 조각에 담긴 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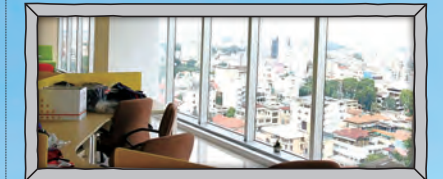
"이것 좀 먹어봐."하며 쑥 튀어 나오는 노란 망고 한 조각. 모니터 속 커서를 따라 바빠 움직이던 내 눈을 어찌 돌리지 않을 수 있으랴. 베트남 사람들은 작은 과일 하나라도 꼭 동료 입에 들어가는 걸 봐야 속이 풀리는 모양이다. 생일 한 번 거르지 않고 때마다 케이크에 얹어 과일을 나누어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 땀 흘리는 현장에서 단단해지는 '진짜' 영업인

"아유 공장장님, 그게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 가서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10개의 메일로 구구절절 메일 용량 늘리는 것보다 '가서'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백 번 빠르다. 때로는 서류상의 원단 폭보다 눈으로 확인한 원단 폭 빠짐이 더 확실한 법이다. 여의도 사무실에서 바다를 건너 베트남 공장에 넣어 준 원단이 도대체 다 어디로 갔나 가슴을 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수도 없이 공장을 들락거려야만 공장 입맛에 맞는 메일을 쓰는 경지에 더 쉽게 오를 수 있다. 그럼 그때부턴 공장이랑 연애편지를 쓰면 된다.

Develop 때부터 애 먹이던 부자재가 걱정되면 검수 담당 직원에게 직접 Develop 당시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해당 불량은 걸러내라고 지시하면 된다. 다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몇 명은 한국말도 아주 잘 한다.



* 바이어와의 전쟁

귀찮은 부분이지만 한때 코앞에 바이어 사무실이 있다 보니 바이어가 시시때때로 방문한다. 데미에 샘플 입혀 놓고 Strike off 준비해 놓고 Meeting room 안에서 피 터지는 Onsite Meeting이 이루어진다. 이 미팅의 주체는 실무자인 주임들과 대리들이다. 미팅의 최전선에서 바이어에게 제안을 하고 때로는 버티기도 하면서 바이어와 한세의 이상을 조율해 나간다. 대부분의 경우, 바이어는 생산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평소 공장을 누비면서 하나 둘 주위 들은 조각 지식으로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내가 이걸 알고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하고 식은 땀 흘리는 짜릿함을 맛볼 수 있다. 폭풍 같은 미팅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또 한 뼘 더 자라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너털웃음을 짓게 될 것이다.





한세실업 14차 인턴 47명 입사

10월20일, 한세실업에 47명(외국인 포함)의 인턴이 들어왔다.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열정과 패기로 뚝뚝 뚫힌 47명의 인턴은 6개월 인턴과정을 거친 후, 일정 심사를 통해 정직원 전환이 될 예정이다.



한세예스24그룹의 새 가족 - 동아출판

10월23일, 예스24가 동아출판(煎 두산동아)을 인수, 한세예스24그룹의 새 가족이 되었다. 예스24는 이번 인수로 전자책 단말기는 물론 콘텐츠 경쟁력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10월 한세실업 조직개편

기존 5개 수출본부에서 4개 수출부문이 신설되었다. 수출 1부문 & 수출 5부문은 Knit 부문, 수출6부문 & 수출7부문은 Woven 부문으로, 기존 본부장들은 모두 부문장이 되었다. 이번 조직개편은 바이어 증가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위해 진행되었다.



드림스코 - 한세드림으로 사명 변경

드림스코는 지난 2011년 한세실업 자회사로 편입된 이래 기존 사명을 유지하다가 모기업과의 통합된 이미지 구축을 위해 한세실업과 드림스코 사명을 통합한 한세드림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의지를 담은 새로운 사명과 CI변경을 시작으로, 한세드림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유아동 패션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전달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11월 18일, 베트남, 이집트, 몽골 등 10개국 출신의 유학생 16명에게 1인당 한 학기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13기 외국인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장학지원은 단순 장학지원금의 혜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문화에 잘 적응하고 졸업 후 한국과 각 국가 간의 교류 활동에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한 지원으로,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앞으로도 한국과 각국의 가교 역할을 할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드림 조인트 한세24’ 사랑의 김장나눔

그룹사 통합 봉사동호회 ‘드림 조인트 한세24’와 한세실업 임직원은 12월6일,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이주민 무료급식소를 찾아 김장 3000포기를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김장나눔 활동은 사내 밴드 동호회 G24의 3회 정기공연 수익금과 봉사동호회의 지원금으로 마련되었고, 임직원이 직접 만든 김장은 이주민 무료급식소를 찾는 외국인 노동자, 중국동포 등 이주민 500명에게 전달되었다.



한세드림 사랑의 연탄나눔 캠페인

한세드림은 성북구 삼선동 일대에서 저소득가정과 독거노인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캠페인’을 펼쳤다. 이 캠페인은 11월 13일부터 12월14일까지 한세드림 페이스북 내 게시물 ‘좋아요’ 1회 당 한 장의 연탄을 적립하는 형식으로 진행, 이벤트 종료 후 적립된 수량과 회사측의 기부수량을 합한 5천장의 연탄을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전달 하였다. 한세드림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나눔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13차 인턴의 정직원 전환과 베트남 연수

2014년 12월 12일에 13차 인턴사원이 6개월의 인턴 기간을 마치고 정직원 전환이 되었다. 정직원 전환 소식과 동시에 떠나게 되는 베트남 신입사원 연수도 12월 18일 ~ 21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한세실업 정직원으로 해외법인을 체험할 수 있었던 3박 5일간의 연수기간은, 앞으로 한세in으로 업무를 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경험이 될 것이다. 한세실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입사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해외법인 협력업체 간담회

매년 12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는 협력업체 간담회가 개최된다. 올해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각각 11일, 19일에 현지 협력업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해외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를 가졌다. 한세실업과 해외법인의 비전, 2015년 계획 및 전략 등을 협력업체에 발표하고 미국시장 및 주요 바이어 동향과 지속 가능한 동방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 상호간의 애로 및 건의 사항들을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헤민스님 조찬강연회

상처, 결핍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지난 12월 26일 렉싱턴 호텔에서 한세실업 임직원 대상으로 헤민스님의 조찬강연회가 열렸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하고 힐링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고 연말을 맞이하여, 바쁜 일상 중 자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명강의였다.

